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길을 지역에서 발전시키자!

제 8 회 이주 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포럼·동해2011에 꼭 협력해 주십시오

이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8 회 이주 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포럼·동해(東海) 2011” 실행위원회입니다. “이주 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이주연)는 일본 전국의 이주자 지원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제 8 회 전국 포럼은 2011 년 6 월에 나고야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포럼에서는 불황후의 동해지역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심포지엄이나 기념 강연, 워크숍을 조직합니다. 워크숍에서는 이주자를 둘러싸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상의하고 일본 사회에 대해 제안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를 봐 주십시오.

○일시 : 2011년 6월 18일 (토) · 19일 (일)

○장소 : 中京大学名古屋(츠키오대학나고야) 캠퍼스

〒466-8666 愛知県名古屋市昭和区人事本町101-2

○프로그램 :

18일 (1일째) 13시~심포지엄 “2007년 금융 위기 후의 동해지역의 다문화공생을 생각한다”

15시 45분 워크숍 ①「입문편」②「여성」③「외국인 연수생·기능실습생」④「노동」⑤「의료」⑥「교육」⑦「새로운 채용 관리제도」⑧「난민」⑨「일계인」⑩「필리핀인」⑪「재일 코리안」⑫「재일 중국인과 정주화」⑬「자치단체와 정책」⑭「사회 사업(social work)」⑮「반빈곤(反貧困)」⑯「대학과 외국인 지원」* 타이틀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시~교류회 외국의 댄스나 노래 등 퍼포먼스, 각국 요리가 있습니다.

19일 (2일째) 9시~12시반 기념공연 (미정)、전체회의

○참가비용 2000엔 (교류 회비 별도)

올해는 필리핀과 브라질 이주자 자신이 기획하는 워크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해(東海)지역에 사는 이주자 여러분의 소리를 전국 지원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준비에 협력해 주실 분, 포럼 운영을 위해서 기부해 주실 분, 기획에 참가할 생각이 있으신 분, 협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 8 회 전국포럼 실행위원회 공통대표

大脇 雅子[오와키 마사코] (변호사·외국인 연수생 권리 네트워크 공통대표)

杉浦 裕[스기우라 히로시] (의사·나고야 노동자 재해 보험 직업병연구회)

田中 宏[타나카 히로시] (一橋大学[히토즈바시대학] 명예교수)

부이치토룬 (愛知淑徳大学[아이치슈쿠토쿠대학] 교수)

由井 滋[유이 시게루] (가톨릭 신부·이주 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공통대표)

■연락처 : 〒466-0815 名古屋市昭和区山手通5-33-1 杉浦医院4階

名古屋労災職業病研究会内 제 8 회 전국 포럼 실행 위원회 사무국

담당·成田(나리타) 전화/팩스 052-837-7420

E-mail : forum.tokai2011@gmail.com 블로그 : <http://forum2011.seesaa.net/>